

안경환의 법과 문화



군대도 사회다, 군인도 사람이다

지난 4월 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종결되지 않았다. 아직도 11명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마무리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전혀 짐작 못할 바도 아니다. 동료 병사 사이의 불화일 것이다. 극도로 폐쇄된 사회, 계급이 극명하게 선후를 구분하는 사회, 미숙한 열정과 분노가 겹잡을 수 없어 난무하는 청춘, 항시 살인무기와 동거하는 일상,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상의 이성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군대도 엄연한 사회다. 비록 같은 제복을 입었지만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신체도, 정신도 제각각이다. 그러나 '다르지만 같은' 부류로 살아야만 한다. 다르지만 함께, 함께 더불어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평화의 시기, 단지 전쟁을 대비할 뿐인 시기에는 군대는 일반사회의 축도가 되어야만 한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무관심을 적절하게 조화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춘'과 '무기', 두 개의 위험이 합쳐서 폭발한다.

국무총리 후보 두 사람이 연이어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다. 후보자 넷 중 셋이 국회정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의 형식으로 마감한 것이다.

최전방부대의 G.O.P. 초소에서 대형 총기사고가 터졌다. 침식을 함께하던 병사가 동료들을 '정조준' 살해했다. 무장 탈주한 그가 긴박한 대치 끝에 자살을 시도하면서 상황은 일단 종료되었다.

그러나 평화의 시기, 단지 전쟁을 대비할 뿐인 시기에는 군대는 일반사회의 축도가 되어야만 한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무관심을 적절하게 조화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춘'과 '무기', 두 개의 위험이 합쳐서 폭발한다.

종교칼럼



이원재 광주무등교회 목사

사람이 없는가? 찾지 못하는가? 찾지 않는가?

빠져있다. 한 나라의 총리감이 없다. 두 번이나 찾지 못했다.

'지도력이 부족하다', '인선 라인에 누구나', '왜 검증도 하지 않았느냐' 등 온갖 질책이 난무하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한 나라의 행정 수장으로서 나라 일을 하려면 모든 면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갑자기 교인 수가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다. 그런데 당시 수많은 과부들이 모여들었던 것이다. 고아나 과부는 예나 지금이나 구제의 대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누구는 주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을 끼칠 정서적 소지를 내포한 병사를 '관심병사'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명확치 않다.

제대를 몇 달 앞둔 선임병인 그가 관심병사라는 레데라 때문에 정당한 관심보다 부담한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행여 나 이 사건에서 그의 정신이력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다시금 우리 사회에 배배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강화, 고착될까봐 걱정이다. 이 문제는 특정 '관심사병'의 '비정상적'인 행위 때문에서가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오래전 일이지만 한 때, '군인'과 '사람'이 함께 걸어간다는 농담이 유행했다. 군인, 그중에서도 사병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다.

이가 아니었다. 군대는 마지못해 '끌려가서' 청춘을 허비하는 곳으로 치부했다. 그래서 힘과 돈,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쉽게 빠지는 곳, 그게 군대였다.

근년에 들어와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 중에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유난히 많은 것은 이러한 과거의 세태 때문이다.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천안함사태 때는 대통령이 물론, 총리, 청와대 대통령실장, 여당 대표, 모두가 군복무를 피한 사람들이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 시절 군대를 겪은 사람들은 즐겨 말한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요즘 내무반 생활은 호텔생활과 다름없다.'라고. 그러나 더욱 군기를 세게 잡아야 한다고,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다. 시대가 달라졌다.

다만 예나 지금이나 본질은 마찬가지다. 군 복무 중 바깥세상과의 단절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제는 원하는 사람만을 군에 뽑아 제대로 키우는 모병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기고



김병복 한국감정원 광주지사장

더불어 행복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대책(회피방안)으로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 예컨대, 자고나면 집값이 오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이번,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시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취득세 감면 정책은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함으로써 일시적 반짝 효과라는 시각이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 상환비율) 등의 금융조치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세입자 평균주거비용이 자가주택 거주자의 56%에 불과해 전세주거비가 자가주거비 보다 연간 330만원이 덜 드는 현실, 무주택자 4명중 1명이 집 살 여력이 있음에도 전세 살다가 내집 마련하는 경

고, 누구는 주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많았다. 구제에 힘썼지만 일부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구제 파드름을 운영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을 세우며, 몇 명이나 세울 것인가?'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여기 많은 사람 가운데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지혜가 총만한 사람과 주위 사람들에 게서 칭찬 듣는 사람 등 일곱 명을 뽑기로 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한 진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이유 하나는 든다면 그것은 부동산 정보 가 일부 계층이나 특정인에게만 한정된다는 데 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양질의 부동산 정보와 통계를 향유할 수 있다면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건전하게 바뀌지 않을까.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현재 가치가 얼마나 되고 1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미래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것인지 국민 누구나 추측이 가능한다면 우리의 부동산 문화가 건전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지 않을까.

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면 될 것이다.

6월25일 현재 총리가 비어있다. 속히 사람을 세우야 한다.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의 정서가 어지럽고 사이버 집단교주 한 사람으로 인해 온 나라가 발목을 잡혀 있지 않은가? 왜 유병언을 잡지 못하는가? 안 잡는가? 시골 사람들이 "유병언이 잡히면 많은 사람이 다칠 것이다"라고 말한다.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잡아야 한다.

속히 이 민중에게 희망을 주고, 시장 사람들의 웃음을 돌려주고, 텅텅 비어 있는 음식점이 살아나게 해 주고, 어깨에 힘주면서 궁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해주오, 아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한다.

를 미션으로 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은 그동안 감정평가 위주로 운영되던 조직의 기능을 감정평가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의뢰하는 감정평가 등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가격 조사와 공시, 부동산 정보와 통계를 생산하는데 전념토록 했다. 행복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매개체로 경제·사회·문화·환경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정보와 정확한 통계, 그리고 꾸준한 R&D 등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도 향상을 기해야 한다.

부동산 문화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관행, 거래행태 등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바꾸어 나가는 모든 행동양식을 포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부동산 가격조사·통계, 정책지원, R&D, 부동산문화 교육 등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건전한 부동산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통계를 생산하고 통합 관리하는 물론 부동산 도탈 플랫폼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부 3.0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건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 더불어 행복한 부동산문화를 만들어 가는 선결전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社說

정 총리 유임, 세월호 책임은 누가 지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총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60일 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전격 결정했다. 사의 표명을 했던 총리가 유임 조치되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 후보자 2명의 연쇄 낙마를 부르는 어지러운 흐름을 거듭하더니 결국 두 달간의 행정 공백만 대통령을 물론, 총리, 청와대 대통령실장, 여당 대표, 모두가 군복무를 피한 사람들이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 국정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일 수 있었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납득되지 않는다. 우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 총리를 다시 기용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인사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결정은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정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2기 내각'을 구성하고, 새 내각이 '국가 개조'에 앞장서게 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적폐를 뜯고 치겠다던 의지도 빛이 바래게 됐다.

줄속 국정조사 우려되는 세월호 사고 특위

국회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5일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천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은 목포·진도에서 각각 조사를 벌였다. 기관보고 일정은 둘러싼 갈등에 이어 특위 활동이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한미 의원을 비롯한 야당 특위 위원 9명은 이날 목포해경에서 초동 대처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진 질의에서 위원들은 세월호 선체에 진입하지 않고 무전기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해 123점에 구조지시를 내린 이유 등을 따졌다.

위원들은 이어 해군 3함대 사령부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해 조사 활동을 펼쳤다. 진도 VTS에서는 세월호 관제의 적정성과 교신 내용 편집 의혹 등을 점검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특위 위원장 등 여당 특위 위원 9명은 이날 인천

결과적으로 유임 조치는 총리조차 임명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사가 잇달아 수용되지 않은 데 따른 오기 또는 어깃장으로 비친다. 게다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겠다는 발상은 김기춘 비서실장 등 현 시스템의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정 총리가 유임을 수용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시각들이 많다. 그는 내각 책임자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대 수습을 위한 '시한부 총리'를 지냈다. 그런 그가 총리를 다시 하겠다고 나선 것은 내각의 영(令)이 서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와 인사시스템의 결함 등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경제, 민생 등 현안 과제를 도외시한 채 언제까지 인사에 끌려다니는 것인가.

연안여객터미널,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인천해경을 찾아 세월호 운항관리지도·감독 실태 등을 조사했다. 세월호와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에 탑승해 조타실 등을 살펴 보기도 했다.

특위가 이처럼 여야로 나뉘어 따로 따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기관보고 일정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 때문이다. 여야는 다행히 오는 30일 안전행정부와 국방부, 전남도, 진도군을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26 일 전체 활동기간(90일) 중 4분의 1 이상을 흘러보냈다. 갈등이 재연될 경우 '줄속·날림' 국조까지 우려된다.

세월호 참사 발생 7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니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겹돌고 있다. 여야가 한마음으로 심도 있는 국정조사에 나서 특위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처음 문화부로 발령받고 나서 그림 한 점을 샅샅이. 광주 예술의 거리 갤러리에서 열린 그룹전에서도. 문화부 기자가 된 기념이었다. 아주 오래 전 일이라 세세히 생 각 나지는 않지만 '첫 작품'인림 오프라인 그림을 봤던 기억이 난다.

함께 동행한 이가 조금 부담되더라도 '이름' 있는 사람 작품을 고르는 게 어땠겠냐고 했다. 한데 이상하게 눈에 밝히는 그림이 있었다. 일사구 몇 개 달린 감나무를 그린 수채화였다. 작품 제목은 '도림마를 감나무'.

기교도 하나 없이 화려한 색감도 없이, 그냥 무심한 듯 그린 작품이었다. 결국 무명 작가의 그 수채화를 선택했다. 어쩌면 내가 그를 응원한다는 마음을 갖고 싶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문화부를 떠나서도 전시 기사를 볼 때면 그 작가가 가끔 떠올랐다. 그는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가난한 작가는 어쩌면 붓을 쥐어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오랫동안 내 방 밖에 걸려 있던 그림은, 지금은 친구 방을 장식하고 있다.

웬지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입하는

건 쑥스럽다. 선풍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이들이 보면 좋은 전시회가 있다.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열리는 사진작가 이세현씨의 '돌 사세요'전이다. 전시장 한 칸에 마련된 모금함에 3만 원 이상 기부하면 관람객이 원하는 사진 작품을 가질 수 있다. 이 씨는 작가의 경우 항상 작품을 보여주지만 하고 관람객은 단순히 작품을 보고 지나치는 게 안타까웠다고 한다. 관람객이 작품을 사는 등 갤러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보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냈다.

수익금은 전액 무료 급식소에 기부한다. 작가를 응원하고, 작품을 받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일석삼초 즐거움이 있는 이벤트다.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된다.

그림 구입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는 8월30일~9월2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광주국제아트페어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아트페어에 참여한 화가들이 '이벤트' 형식으로 부담 없는 가격에 작품을 내놓기도 한다. 작품 소품의 기회다.

/김미은 문화 1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제 크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